

오사카 재일(在日)제주인 여성의 이주와 귀향*

안미정**

<차례>

- I. 서론
- II. 오사카 조선시장과 제주사람
- III. 이주와 정착
- IV. 귀향에 얽힌 사회문화적 지형
- V.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오사카 이쿠노구(生野區)에 사는 재일(在日) 제주출신 여성들의 생애와 생활을 중심으로 하여 초기 이주와 정착, 그리고 귀향에 얽혀 있는 사회문화적 지형을 기술한 것이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관찰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주한 제주인들이 이쿠노구를 중심으로 밀집한 것을 이 지역의 조선시장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시장은 이주자들이 초기 정착과정에서 상호 거래를 하며 정주기반을 마련하였던 사회적 네트워크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무자본(無資本)의 상황에서 서로 모여 삶으로써 그들 사이에 형성된 네트워크가 정착의 자본 구실하였다고 본다.

* 이 글은 연구자가 일본 토요타재단의 연구지원과제인 <2005 일한의 해역생활자에 의한 어로문화형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19세기말 이후 사회변화의 대응과정으로서>(D05-R-0241) 일환으로 현지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다. 주요 정보 제공자인 고봉래, 고난희, 양의현, 고기생 할머니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고를 심사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드린다.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 문화인류학 전공

초기 이주자들의 정착을 세 여성의 생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가운데 제주여성의 '물질'은 열악한 상황에서 생계수단이 될 수 있었으며, 현재 제일제주인 내의 사회적 관계를 잇는 기능을 하였다. 또한 여성들 사이의 계(契) 모임은 회원들의 생활상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고령이 된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고향인 제주도와 네트워크를 가지려고 하며 그것은 일시적 고향방문이나 산소의 마련, 현금 기부와 같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후원은 친족의 도덕적 의무로서 간주되며, 고향에 부재(不在)함에 따르는 후원으로서 그들이 고향에 대해 일방적 후원자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제적 후원의 의무, 그리고 국적에 따라 정체성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 등 제일제주인들의 귀향은 단지 고향방문 이상의 복잡한 지형 안에 있음을 보게 된다. 이 연구는 미시적 접근에 의한 거시적 담론의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나, 제일제주인 사회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제주)여성의 생활경험을 다루고, 일상생활, 고향(사람)에 대한 제일제주인의 시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제일제주인들이 일본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재일한인 집단으로서 제주사회의 부속 집단이 아니며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민족=국가라는 도식으로 접근하는 한계를 지적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재일제주인, 제주여성, 이주, 오사카, 물질, 후원, 귀향, 국적

I. 서론

1. 문제제기: 재일한인사회연구와 여성

이 글은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고향인 제주도를 떠나 도일한 후 현지에 정착하여 살아온 한 여성의 생활사를 통해 그녀의 초기 이주 정착 과정과 생활, 귀향에 얽힌 사회문화적 지형을 살펴보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 개인의 생활사는 국가와 민족, 식민지와 제국주의, 차별과

인권이라는 거대 담론들과 본질적으로 무관할 수 없으나, 연구자가 목 적하는 것은 거대담론에 가려져 온 생활인의 관점에서, 즉 일상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다른 사회질서, 문화에 적응 혹은 대응하며 살아온 여성의 생활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2005년 1월 기준, 재외한인은 약 670만 명을 헤아리며 그 가운데 재일 한인이 901,284명으로 전체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¹⁾ 일본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재외한인이 가장 많이 이주한 국가이며, 재일한인의 이주에 는 지리적 근접성 외에도 한일합병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징집과 노무자, 유학과 경제적 일자리를 찾아 도일하였던 한인들 가운데 해방 후 귀국하지 못한 채 현지 정착하여 지금의 1세대를 이루어 온 것 이다. 재일한인들은 조국을 지배하였던 식민통치국에 거주한다는 점에 서 다른 재외한인들과 다른 사회정치적 상황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재일한인연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국내학자들에 의한 재일 교포의 이주사, 법적지위와 정체성, 생활실태 등에 대한 연구보고들이 축적되어 왔으며(문옥표 1995; 정병호 1996; 신행철 1997; 국립민속박물관 2002; 윤인진 2002; 김게르만 2005), 재일한인사회 안에서도 재일한 인에 대한 역사와 전망에 대한 연구들이 이어져왔다(양성중 1991; 姜在彦 1976; 枚方市教育委員會 1991; 文道平 1998, 耽羅研究會 2006). 그

1) 2006년 3월,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의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자료집 (p.4)에서 인용(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www.okf.or.kr/ 참여마당/정책자료 서비스 검색). 일본의 공식자료에서 재일한인은 국적(國籍)에 의한 '한국-조선인'으로 언급 된다. 재일교포의 복지상황을 다룬 고경일(2005)은 일본의 공공정책 대상으로서 '한국-북한 국적의 외국인'으로 분류하지만, 넓게는 일본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들까지도 재일교포 범주 안에 아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자는 한국-조선인으로 불리는 국적 중심의 분류와, 국내중심의 시각을 반영하는 '재일교포'의 용어를 논의 맥락 에 따라 사용하고, 이들을 일본사회의 소수자라는 관점에서 재일한인(在日韓人)으로 표기하겠다.

리고 식민지 시대로부터 해방 직후 일본에서의 생활경험을 담은 생애사를 담은 연구보고들도 나오고 있다(藤永壯·高正子·伊地知紀子 외 2000). 재일한인 연구는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역사가 개입된 한일 양국 사이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역사적, 정치적 사건과 상황에 주목하게 되지만, 여기에 개인들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조용하며 살아왔는가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이지치 노리코(伊地知紀子 2000: 105)는 역사의 구조화 속에서 개인들의 “즉흥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실천”, “미세한 실천은 생활세계를 생성·재편하는 힘이 되며 구조의 힘에 의해 완전히 규정되지 않은 개인의 주체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

한편, 재일한인사회는 식민지 역사경험을 가진 인구층을 토대로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국의 분단과 정치적 파장이 일상적 생활세계에서 이웃, 가족, 친족 관계를 통해 경험되고 있는 사회이다(정병호 1996:106~108). 그동안 재일한인사회 연구가 다각적이고 복합적 접근의 한계가 있었던 것은 조국의 분단과 냉전체제에 의한 국내 정치세력의 좌우대립, 교포사회의 양분화, 한일 양국 간의 정치적 마찰 등 정치적 상황에 말미암은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출신 재일한인사회에 대한 연구는 제주지역 연구에서 한 축으로 자리 잡아 왔다. 주요하게는 재일 제주인의 의례와 사회조직, 고향인 마을사람들과의 사회관계를 다루어 온 것이며(이문웅 1988, 2005; 유철인 2000; 김창민 2003), 제주와 일본의 관계를 고찰해 볼 수 있는 사학과 경제학 분야의 연구들이었다(진관훈 2004; 고광명 2005).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한 지역이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를 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재일제주인의 연구가 제주도라는 지역 연구인 동시에 지역의 경제

를 뛰어 넘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곧 제주 지역사회와 제주인, 그리고 재일제주인에게 국가, 지역, 사회, 장소로서 일본이라는 아이콘이 있으며 그것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를 되짚어 보게 하고 있다.

재일제주인 사회는 단일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자들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목적에 따라 일본으로 강제적/비강제적으로 건너간 1세대들과 그 후세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도일하였다 하더라도 남녀가 동일하고 단일한 양상의 사회적 경험을 하지 않으며 그들의 기억도 마찬가지로이다. 강재언(姜在彦 1976: 30)은 재일한인의 남녀성별구성에 있어 1930년대 이후 여성의 비율은 197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재일제주인 사회는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일한인사회의 여성의 생애 및 생활을 토대로 한 글은 미미하다. 해방 후 재일한인이 어떻게 현지에 정착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이는 여성의 생활 경험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에서 기인하는 하는 면이 있다고 본다. 성공한 재일실업가의 고향 후원과 우리말 교육 등이 달성되어 온 데에는 해방 후 무자본의 상황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사회적 정착을 도모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 보아야 한다. 한 여성으로서 생애과정은 가족의 경제적 부양 및 교육과 혼인에 이르는 사회생활을 포괄하고 있으며, 재일한인사회가 형성되어 온 궤적을 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향과 일본에 가족, 친족을 형성하고 있는 1세대 이주자들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고향과 현지(일본)을 잇는 네트워크가 생성되며, 자식과 손자들에게 고향의 언어와 음식, 예법 등을 전수하는 문화적 중심체 역할을 하며 후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상징적 존

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재일제주인여성의 생활로부터 재일한인 사회의 한 단면을 재조명해보고자 하는 시론(試論)이다.

2. 연구과정

본 연구는 일본 토요타(TOYOTA)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세 차례에 걸쳐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 연구자는 2006년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1주일, 2006년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한 달, 마지막으로 2007년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약 보름 동안, 총 3회에 걸쳐 52일 오사카(大阪)와 와지마(輪島), 토바(鳥羽) 등지에서 제주출신과 일본인 여성 어로자들을 인터뷰 한 바가 있다.

오사카에서 처음 정보제공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쿠노구(生野區)의 <조선시장>에서였다. 시장구경을 하며 걸어가던 중 제주 말소리가 들리는 김치가게 안에서 여러 할머니들을 만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우연히 이 가게에서 일하는 동향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며, 이 가게를 중심으로 주변의 1세대 할머니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다큐멘터리 <海女のりゃんさん>(2004, 감독:原村政樹)의 주인공 양의현 할머니도 있었다. 주요 정보제공자인 고봉래 할머니는 일본 측 연구자의 도움으로 만나게 되었으며, 두 번째 방문부터는 그녀의 자택에서 인터뷰를 하며 가족, 동네사람들과의 일상생활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오사카 근교에서 그녀의 “물질”을 참여관찰하게 되었다. 먼 곳에서 온 또 다른 아주머니와의 주기적으로 목욕탕을 간다든가, 같은 골목길에 사는 또 다른 고난희 할머니와의 만남도 모두 그녀가 일상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정보제공자에 대한 윤리로 본문에 인용한 사례에서는 가명을 대신 사용하였다. 이 글은

재일 이주여성의 생활사를 재구성해보는 시론적(試論的) 성격에 지나지 않으며, 짧은 체류기간과 면담, 몇 차례의 참여관찰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

II. 오사카 조선시장과 제주사람

1. 오사카의 이쿠노구

1910년 이 후, 도일(渡日)한 한인인구가 증가하였으며, 1920년을 전후로 하여 1980년대 중반까지도 오사카(大阪)는 가장 많은 한인들이 이주하여 온 도시였다(生野區役所 1997: 127). 오사카를 구성하고 있는 24개의 구(區) 가운데에서도 유독 많은 한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곳이 이쿠노구(生野區)이다. 이쿠노구는 오사카 전체 면적의 3.8%(8.38km)를 차지하고 있는 작은 행정구역이며, 남북으로 흐르는 히라노가와(平野川)가 있다. 이 지역의 산업은 제조업이 가장 많으며, 오사카 시가 제조업사업소가 가장 많은 도시임을 감안하면 일본의 전체 도시 가운데 이쿠노는 가장 제조업이 많은 지역인 셈이 된다(生野區制50周年記念事業實行委員會 1993: 84). 오사카시를 환형(環形)으로 운행하는 JR 전철역 가운데 동남쪽 쓰루하시(鶴橋), 모모타니(桃谷), 데라다조(寺田町) 3개의 역 주변으로 많은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표 1>은 해방 이후 오사카 이쿠노구의 한인 인구수를 나타낸 것으로 오사카의 30% 이상이 이쿠노구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오사카-이쿠노구의 한인 인구 변화

(단위:명, %)

연도	오사카(A)	이쿠노구(B)	비율(A/B)
1947	58,340	21,361	36.6
1955	75,938	25,499	33.5
1960	103,055	35,831	34.7
1965	110,019	38,227	34.7
1970	110,823	39,579	35.7
1975	109,751	39,404	35.9
1980	109,638	38,713	35.3
1985	110,409	38,417	34.7
1990	110,449	38,666	35.0
1991	110,092	38,404	34.8

* 生野區役所 1997: 129, <표 2. 生野區における外國人人口の推移> 참조

2003년 말, 일본의 외국인등록자 가운데 32.1%(613,791명)가 ‘한국·북한 국적(國籍)’을 가진 재일한인이다. 오사카시에 살고 있는 한인은 92,024명이다. 이 가운데 36.2%에 해당하는 33,267명이 이쿠노구에 살고 있다. 오사카시 한인의 지역 출신을 살펴볼 때, 제주도를 본적으로 하는 사람이 59,537명으로 가장 많았다(고경일 2005: 122). 따라서 오사카의 이쿠노구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한인 밀집지인 동시에, 이 지역의 밀집 인구가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출신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까지 집계된 통계를 볼 때, 그 양상은 더욱 두드러짐을 보게 된다.

〈표 2〉 在日 在오사카 韓人 과 제주도출신자

(단위: 명)

분류	출신	연도	
		1934년	1974년
在日 한인	전체	537,695	638,806
	제주출신자①	50,053(9.3%)	101,378(15.9%)
在오사카한인	전체	171,160	178,720
	제주출신자②	37,938(22.2%)	63,972(35.8%)
재일제주인 중 오사카거주비율	②/①	75.8%	63.1%

* 枚方市教育委員會, 1991, p.56.

재일제주인 흥여표 웅(1930년생)의 생애사에 따르면(高贊侑 2007), 이처럼 이쿠노구에 한인들이 많이 살게 된 것은 1919년부터 1923년까지 히라노가와(平野川)의 개수공사가 행해지면서라고 한다. 이때 일본으로 건너온 조선노동자들이 공사에 참여하여 침수문제가 발생하던 운하의 동편을 매립하였다고 한다. 이후 1920년 후반에는 이 주변에 한인들이 고무공장과 정전(錠前)공장 등의 금속가공공장이 있었고, 1923년부터 제주도와 오사카를 잇는 배가 취항함에 따라 제주도로부터 사람들이 오게 된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평야천은 백제천(百濟川)이라 불려왔던 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이 지역은 더욱 오래전부터 뱃길을 따라 한반도와 교류하였던 곳임을 짐작케 한다(高贊侑 2007: 48~49). 이쿠노의 구청에서 발행한 <이쿠노의 50년 역사와 현황(生野區50年の歴史と現況)>에서도 이곳에 재일제주인이 모이게 된 것은 1919년 히라노가와(平野川)의 개수공사에 토목작업원으로 왔던 한인들이 공사가 완공된 후 떠난 자리에 제주도출신자들이 정주하기 시작하면서이며, 그 요인은 1923년 제주-오사카간 직항로(第2君が代丸)²⁾가 개설된 사정에 따

른 것으로 보고 있다(生野區役所 1997: 52). 제주도의 경제가 식민지 지배에 의해 타격을 받아 생긴 잉여노동이 일본의 노동시장으로 유입되었으며, 제주도내 여러 항포구를 순회하여 오사카로 회항하던 직항로가 중요 교통수단이 되었다(枚方市教育委員會 1997: 55). 제주도사람들의 도일(渡日)은 1934년도 제일본 한인 가운데 제주도 출신자가 5만 명을 상회하여 당시 제주도 인구(약 20만명)의 4인 중 1인이 도일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도일에 따라 제주도는 고령의 노인과 어린아이를 제외하여 오사카로 건너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제주도에서는 농업 인력이 부족하고 조상묘는 방치되었다고 한다(枚方市教育委員會 1997: 56~57). 이처럼 이쿠노 지역은 마치 '작은 제주'라 할 만큼 일본 사회 안에서 제주출신자들의 집단적 거주지였다.

이주자들의 지역적 밀집현상, 곧 교통수단과 경제적 기반시설이 있었다는 것 외에, 제주도사람들이 오사카에 작은 제주를 이루며 사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이문웅(2005) 교수는 제주도가 섬이라는 사실로부터 파악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섬은 바깥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경계 구분이 분명하며 생활과정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라 본 것이다. 육지와 떨어져 형성된 오랜 전통문화가 제주사람들 사이에 일체감을 공유함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 본 것이다(이문웅 2005: 69). 그리고 “제주도라는 그 자체를 안(內)으로 관념”하는 것으로서 “생존전략”의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이문웅 1988: 67~68). 이러한 주장은 섬사람의 문화를 물리적, 생태적 조건에 의해 해석하며 섬을 고립된 지역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있다. 이처럼 섬의 물리적 조건과 사회정치적 현상 사이를 인과관계로 설

2) 러일전쟁의 전리품이었던 러시아 군함을 수리한 약 천톤 정도의 배였다.

명한다면 섬의 문화와 섬주민이 형성하여 온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³⁾ 김계르만은 1920년대 이후 “지리적으로 한인의 분포가 일정한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노동계약의 조건과 일본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이라 지적하며, 또한 “가급적 친지들과 동포들이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도시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다(2005: 395). 정병호는 오사카에서 지역출신지와 거주기간의 연계가 뚜렷한 것은 도일한 초기 한국인이 언어와 풍속이 다른 곳에서 연고관계의 사람들끼리 거주집단을 형성하고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1996: 114).

이러한 주장들을 바탕으로 하여 볼 때, 상호 밀집함으로써 얻는 생활상의 이점이 무엇인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쿠노구의 조선시장은 한국 상품과 더불어 여성들이 채집한 값싼 물건들이 거래되며, 고향의 소식, 친인척의 소개, 구직 정보 등이 오가는 곳이다. 조선시장은 단지 경제적 물물거래가 일어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고향과 이주자들 사이를 잇는 통로이며, 이주자들의 네트워크로 짜여진(만들어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도일한 이주자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사회적 무자본(無資本) 상황에 처해 있다 할 것이며, 이들이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친척과 동향사람의 인적 네트워크는 그/그녀가 일자리를 구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사회적 자본이었으리라 본다. 문옥표(1995)는 도일 이주노동자들이 한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통해, 재일제주인들은 대다수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일간

3) 지금까지 제주도 사회문화에 대한 담론과 해석은 섬에 대한 관점으로 치환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섬을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제한된 공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바다를 통해 다른 세계와 이어져 있다고 볼 것인가라는 관점에 따라 문화의 해석도 달라진다. 그동안 제주문화에 관한 주요담론은 전자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것으로 고려된다.

임금격차와 더불어 도일하게 되는 배경으로 보고 있다. 비단 직접적 연고가 없더라도 도일하여 제일제주인 사회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문옥표 1995: 286). 이처럼 제주사람들이 이쿠노구에 밀집하게 된 것은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향을 후원하는 마을 단위의 친목회 활동을 통하여 제주사람들에게 있어 마을은 지역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위이며 “사회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점을 보여준다(김창민 2003: 196, 218). 같은 지역사람끼리 결합하는 양상은 ‘같은 생활터전에 살았던’ 사람과 맺은 사회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2. 조선시장, 코리아타운, 조선이찌마

일본에서 이쿠노구는 제일제주인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공간이며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조선시장이다. 조선시장은 이쿠노구 동쪽의 히라노가와(平野川), 서쪽 미유끼모리신사(御幸森神社)⁴⁾ 사이 동서 약 500미터 가량의 도로 양편에 형성되어 있다. 김치와 지지미, 김밥 등 한국음식점과 생활용품, 한복, 떡 등을 파는 가게들이 나란히 마주하고 있다. 이곳은 모모다니(桃谷) 상초메(3丁目)에 있으며, 1927년경부터 한인들이 증가하여 193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곳이다(高贊脩 2007: 50). 지금도 한인들의 일상생활과 제사에 필요한 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과 조선국적을 가진 한인들과 일본인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동서로 난 길을 따라 나란히 마주서 있으며, 중간 중간 세워진 큰 기와대문에는 “백제문(百濟門)”이라 쓰여 있다. 이곳의 역사와 한·일문화의 혼합양

4) 어행림상점가의 서단에 위치하고 인덕천황(仁德天皇)이 모셔지고 있다. 1905년에 본전 등이 국가의 등록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신사이다(高贊脩 2007: :48).

상을 보여주듯 이곳을 부르는 이름도 “코리아타운”, “조선시장”, “조선 이찌바(朝鮮いちば)”이다.

해방 후, 오사카 재일한인들 가운데 약 70~75%가 고국으로 귀환하였으나, 제주사람들이 밀집하였던 이쿠노구에서는 60%정도의 사람들만이 귀환하였다고 한다(유철인 2000: 365). 나머지 현지에 정착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생계유지는 이 시장의 형성과정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본래 이곳은 일본인들의 상점가였으며 재일제주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의 싼 물건을 이곳으로 와서 팔거나 바다에서 채취한 전복, 미역 등을 팔고 봄에는 산나물을 캐어 팔면서 점점 이곳에 한인 가게들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주변의 일본사람들에게는 야채상은 곧 조선인(野草摘み=朝鮮人)이라는 도식이 생긴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이다(枚方市教育委員會, 1991: 75~76).

조선시장의 여러 김치가게들 중 T상점의 순희 할머니(1919년생, 이쿠노구 모모다니/桃谷 거주)는 제주출신이며, 이 가게는 인근에 사는 제

주도 출신 할머니들이 담소를 나누는 ‘공공’장소가 되고 있었다. 순희 할머니는 해방 이후 오사카로 와서 잠수업(물질)을 하다가 생활용품을 구매한 후 등짐을 지고 다니며 팔아서 생계를 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일본 글과 말을 할 수 없었으나 기억에 의존하여 이곳저곳을 다녔으며, 현재의 조선시장 상점가에서 파는 물건들 가운데



김치가 없음을 생각하여 김치가게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동안 그녀의 딸과 아들은 고향의 시부모에게 맡겨둔 상태였었다. 가족 가운데 오빠와 남동생, 여동생 2명이 도일하였다가 오빠는 귀국하였으나 동생들은 도쿄와 오사카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였다. 18세에 도일을 시작하여 4차례 왕래하다가 김치가게를 하며 정착하게 되었다. 가게를 하며 고향의 딸을 교육시킬 수 있었으며, “새마을부녀회”를 통해 제주시 삼무공원 조성에 기부를 하기도 하였다. 그녀의 가게는 딸의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여조카가 판매를 도맡아 해오고 있었다. 여조카는 1980년대에 재일교포와 혼인하여 온 후 고모의 일을 돕고 있는 것이다. 3층 건물의 1층만을 가게로 사용하며, 여러 가지 김치 외에도 된장, 고추장과 미역, 콩나물, 고사리, 여름에는 우무(“도코로맹”) 등을 주로 팔고 있다. 김치를 사러 오는 손님들 가운데에는 한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많았다. 전화주문까지 합한다면 T상점의 김치는 수요가 많은 편이며 때문에 김치를 담그는 한국 아주머니를 고용하여 매일매일 배추와 무, 파 김치를 만들었다. 택배로 판매하는 여러 김치가게들까지 합한다면 조선시장은 거의 식료품시장이라 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쓰루하시 역의 또 다른 한국시장에 비하여 점점 규모가 약해지고 있으나 아직도 이곳을 통하여 한국의 인력들이 오가고, 재일제주인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연구자 역시 이곳을 통해 면담지를 찾을 수 있었고, 제주도 잠녀(해녀)들을 만나고자 하였을 때에는 당장 미에(三重)현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소개하는 이도 있었다.

동서로 이어진 시장 길을 중심으로 하여 그 남북에는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이하 거류민단)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의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다. 과거 시장 안에서는 양측이 서로 싸움을 벌이는 일

도 혼했다. 그러나 최근 3년 전부터는 국적이 다른 한인들 간의 교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의 변화였다. T상점에서 연구자가 처음 본 제주출신 할머니들이 바로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 상점에 와서 이야기를 하며 커피를 마시고 또 혹은 점심까지 먹고 가는 할머니들이다. T상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김치 외에 콩나물이었는데, 순희 할머니는 늘 콩나물을 다듬으며 내방한 할머니들에게는 이를 한 봉지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의 자식 가운데 몇은 북한에 거주하고 있다 하였다. 양씨 할머니는 북에 있는 아들 가족을 보기 위해 집안가득 선물을 준비하였으나 북·일간 정치적 마찰 - 일본인 납치사건 -로 말미암아 가지 못하고 있었다. 조선시장이 형성되어온 긴 시간과 남북의 긴장관계를 고려해 볼 때, 할머니들 사이의 이러한 내왕은 이 지역의 새로운 변화양상이라고 할 만하다.

과거 조선시장은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그대로 투영된 대립선이 존재하였으나 그 경계선은 할머니들의 일상세계에서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듯하다. 다만 “남한사람은 경제를, 북한사람은 민족교육을 이루었다”는 자부심으로 그들 사이를 평가하는 말이 회자되고 있었다. 일상에서 국적에 의한 구분은 희미해지고 있으나 고향방문에 있어 국적은 여전히 중요한 경계가 되고 있었다(<IV-3. 경계를 만든 고향방문>에서 후술).

이와 같이, 초기 조선시장의 형성에 있어 여성들의 생계활동이 바탕에 깔려 있으며, 정착 자본을 가지지 못하였던 재일한인들이 상호 집적의 이익과 거래를 통하여 정착기반을 마련하는데 조선시장은 중요한 사회적 공간이었다. 또한 그렇게 밀집한 한인들에게 조선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경제적 기능 외에 사회적 네트워크 및 문화적 소통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Ⅲ. 이주와 정착

해방 전후로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도일한 고령의 제주여성들의 경우, 일본으로 건너 온 것은 애초에 정착을 목적으로 이주한 것이기 보다는 경제적 벌이, 부모 상봉, (남편 또는 자신의) 정치적 피신 등 일시적/한시적인 경우가 많다. 익히 알려진 대로 일제의 강제징병과 같이 강제적으로 일본에 건너오게 된 경우가 있는가하면 경제적 목적을 가진 자발적 도일도 있었다. 강제와 비강제적 상황, 경제와 비경제적 목적을 떠나 식민지 지배체제 하에서 전개된 도일은 누구에게도 자유로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비강제적인 “모집”을 통하여 일본으로 건너오기도 하였다(김계르만 2005: 387). 농사보다 공장에서 벌이를 위해 남성, 여성들은 여러 “모집”을 통해 도일하였으며, 이 가운데 여성들을 모집한 대표적 사례가 “물질”이라고 하는 잠수업(潛水業)이었다. 1930년대 마스다(栴田 一二 1995(1937))는 오사카를 출발하여 제주도로 들어오는 군대환의 풍경을 기술한 바가 있으며, 그 가운데 배에 승선하였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리지어 귀향하는 잠녀들의 모습이 있다. 한시적으로 조업에 참여하였던 잠녀들의 귀향 모습이다. 2006년 이쿠노의 조선시장에서 만났던 7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서 연구자는 물질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들을 수 있었다. 도일과 정착과정을 보여주는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재일제주인 여성의 일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첫 번째 사례: 양씨 할머니의 일

양씨 할머니(1917년생, 이쿠노구 모모다니(桃谷) 거주)는 조선시장을

긴 작은 골목 사이의 2층 목조건물에서 혼자 살고 있다. 북송사업 때 북으로 간 아들 2명과 도쿄에 사는 아들 2명, 제주에 사는 딸 1명, 일본에 사는 딸 1명 등 양씨 할머니의 가족은 모두 남과 북, 일본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남편은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하였던 조총련 간부였었다고 한다. 자녀의 교육과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할머니가 하였던 일은 “물질”과 떡 방앗간 일이었다. 열다섯 가랑에 고향에서 처음 시작한 물질은 일본에서 “못 살아가난” 다시 시작하여 70세까지 하였다. 일본 안에서도 채취자가 필요한 지역이 있었고, 잡녀를 모집하는 “오야가따(おわかた, 우두머리)” 중에는 일본인 외에 제주사람들도 있었다. 이들과는 6대 4의 비율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4할이 그녀의 몫이었다. 3월부터 10월까지, 아침 8시부터 낮 12시까지 채취한 후 점심을 먹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방식이 이어졌다. 할머니는 가고시마(鹿兒島), 시코쿠(四國), 쓰시마(對馬島), 미에(三重) 등 여러 곳에서 전복, 소라, 오분자기를 채취했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산 30평 집을 남편이 사기 당하는 바람에 잃어버렸다. 당시 1600만원(엔)을 주고 산 집이었다.⁵⁾ 게다가 동경에 물질하여 번 돈으로 500만원 쥐서 땅을 사기도 하였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었다. 가을에 오사카로 돌아오면 집 근처 떡 방앗간에서도 다시 일하며 겨울을 보냈다. 하루 100말의 떡국을 만들기도 했었다 한다. 그리하여 주변에서는 “떡 할망”이라고 부른다.

할머니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물질 작업 때문이었고, 그 일은 고향에서 어려서부터 했던 일이었다. 열 아홉 살 때 “김녕사람 고씨의 해녀모집으로” 1년간 동경 근처에서 물질을 한 적도 있었다. 일본에 살았던 증표(“쌀패”)가 있었기 때문에⁶⁾ 일본에 들어

5) 양씨 할머니는 화폐단위를 모두 엔이 아닌 ‘원’으로 말하였다.

을 때는 큰 무리가 없었다고 하였다. 서른 세 살쯤에 일본으로 온 후 최근 3년 전까지 할머니는 단 한 차례 고향에 간 적이 있다(이때의 일은 그녀의 다큐멘터리에도 나와 있다). 고향에 자주 가지 못하지만 할머니는 고향 사람을 통해 고향 소식을 듣고 또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따라서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으나 그녀의 가족과 고향 친지들에 관한 한 고향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엌에는 “조왕상”을 마련하여 매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였다. 양씨 할머니는 인근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 하루의 주 일과였다. 물질하며 생긴 다리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지만 할머니는 자전거를 타고 조선시장의 큰 길을 매일 지나 다닌다. 간혹 시장에 있는 김치가게에서 고향사람들과 커피를 마시고 밥이나 떡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 이상 할머니가 하는 일은 없는 듯하였으나 2007년 연구자가 다시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할머니는 명절로 바쁜 떡 방앗간에서 잠시 일을 했었다고 하였다.

양씨 할머니의 사례를 통하여, 할머니의 물질은 가족생계의 주요한 토대였으며 사회적 자본이 없던 이주자들의 현지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을 보여준다. 이 때 그녀의 물질은 개인의 기량, 경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일계주인 여성의 한 사회적 자본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두 번째 사례: 진아 할머니의 물질과 네트워크

진아 할머니(1926년생, 이쿠노 데라다쵸(寺田町) 역 근처 거주)는 제주도 종달리가 고향이며, 19세에 “해녀모집”으로 일본으로 건너오게 되

6) 쌀패는 구역소에서 배급받을 때 사용하였던 것으로 본래 호패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었다. 고향에서 조부모와 함께 농사와 염전을 하며 살았던 그녀는 오사카에 살고 있던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도일한 것이라 하였다. 고향 바닷가에서 어느 여성들처럼 물질을 하였던 그녀는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수단으로 해녀모집에 나섰다고 하였다. 한일합병으로 일본의 수산상인들은 제주도에서 여성들을 모집하여 일본연안의 해산물 채취작업에 활용하고 있었으며, 한시적 노동으로 현금 소득을 할 수 있었던 해안마을 여성들이 무리를 지어 일본으로 왕래하곤 하였다. 그녀 역시 1944년 마을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시모노세키(下關)에서 한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는 “모집”을 계기로 일본에 오게 되었다. 당시 그녀가 한달에 번 돈은 150원이었다. 한달 간의 작업 후 그녀는 본래 목적이었던 “부모와 살기 위해” 일행을 떠나 오사카로 왔다고 하였다. 이후 그녀가 고향에 돌아간 적은 없었다.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3남 1녀를 낳아 분가시켰으며, 역 근처의 집에서 외동딸의 손녀, 손자와 함께 살고 있다. 남편은 제주도 표선리가 고향인 재일제주인으로서 10년 전에 사망하였다.

2006년 처음 인터뷰를 하였을 때, 진아 할머니는 지금도 물질을 다닌다고 하였다. 입어권이 없는 그녀가 어느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지, 혹은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였다. 또한 인터뷰 도중 그녀는 물아래의 세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오분작은 와카메(미역) 나는 돌 밑에 나는데 돌 아래 오글오글한데 가민 이서.”

“합저(홍합)가 많으면 문어도 많이 이십니다.”

60여 년 전 고향을 떠났던 진아 할머니에게 이러한 바다 속의 지식은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었다. 2006년 여름 그녀가 말해 준

“물때”에 맞추어 연구자가 동행하였다. 물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테왁(부표 기능)과 망사리(그물자루)는 물놀이에서 쓰이는 튜브와 나일론 그물망으로 대신하였고, 오리발과 허리에 매는 낚덩이(연철)는 없었다. 긴 바지에 긴 팔옷을 입고, 물안경과 수건을 쓰고, 껌으로 귀를 막는 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하여 채취한 것은 우뚝가사리였다. 파래가 가득한 흐린 바닷물 속에서 약 1시간 반 가량을 했었다. 두 번째의 물질은 딸과 손녀를 동반하여 바캉스를 겸해서 간 곳에서 이루어졌다. 역시 우뚝가사리를 채취하였고, 더불어 간혹 보이는 오분자기도 잡을 수 있었다.

물질할 수 있는 기량이 있다하더라도 바다가 없는 잠녀는 물질할 수 없으며 그것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진아 할머니가 물질하였던 바다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첫 번째 물질한 곳은 큰 유원지의 앞바다였으며, 두 번째는 하수처리장 앞바다였다. 곧 지역 어업조합에서 양식이나 입어작업을 하지 않는 바다였다. 따라서 채취권과 무관하거나 채취물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지역을 찾아 진아 할머니의 물질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진아 할머니가 이곳을 알게 된 것은 그녀의 여동생이 이 지역으로 시집을 오게 되면서 안 것이었다. 물질을 함께 간 동료는 또 다른 사람이었다. 물질 파트너가 생기게 된 곳은 동네 근처의 목욕탕에서였다. 우연히 목욕탕에서 바다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말을 들은 교포가 합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바다를 좋아한 교포는 물질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진아 할머니와 함께 바다까지 동행만 했을 뿐이었다. 2006년, 진아 할머니는 파래가 가득한 흐린 바닷물 속에서 채취한 젖은 우뚝가사리를 갯돌 위에서 잠시 말린 후 기차를 타고 오사카로 돌아왔다.

진아 할머니의 해초는 그녀의 네트워크 안에서 분배되었고, 또한 이

리한 분배는 작은 이득뿐만 아니라 그녀가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매체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하얗게 말린 우뭇가사리는 여름에 먹는 “도꼬로땡”(“우무”)의 원료가 되는데 진아 할머니는 주변의 제주사람들에게 “차비정도”의 돈을 받고 - 2006년에는 4000엔이었다 - 팔았다. 주요 구매자는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연화 할머니였다. 연화 할머니는 이를 다시 그녀의 자식과 손자를 위해 도꼬로땡을 만들었다. 또 다른 구매자는 목욕탕에서 만난 또 다른 재일제주인으로 진아 할머니는 해초를 나눠주고 그녀는 깻잎을 받았다.

진아 할머니의 사례는 개인의 물질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잘 보여준다. 재일제주인이 밀집한 거주지에서 우연적인 만남에 의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며, 그들 사이에 일상적 ‘주고받기’가 일어나며, 음식을 통한 문화적 공유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진아 할머니에게는 60여 년 전 하였던 물질 경험이 그녀의 생계수단에는 무관 하였을지 모르나, 현재 그녀의 일상적 네트워크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여성의 물질은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도 그들의 사회적 자본 구실을 한다 말할 수 있다.

3. 물질이 아닌 또 다른 방법

물질 이외에 여성이 가족의 생계, 정착과정에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은 연화할머니(1930년생, 이쿠노구 데라다쵸(寺田町) 역 근처 거주)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녀는 일본에서 태어났으나 해방 후 귀향하여 고향 신촌에서 초등학교를 마쳤다. 4·3사건 직후 일본으로 건너와 제주사람인 남편을 만나 혼인하였다. 슬하에 2남 3녀를 두어 모두 우리학

교에서 교육을 시킨 후 일본 대학에 진학시켰다. 남편은 우리학교의 교직원이었으나 후에 학자가 되었다. 남편이 사망 한 후 가까운 곳에 사는 딸들이 그녀를 돌보기도 하지만 2층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나 초기 정착과정에서 자식의 양육과 생계를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마도매(まどめ)” 일과 “다노모시(だのもしい)”를 통해서였다. 목돈이 들어가는 큰일에 대비하여 주변의 재일한인들과 하였던 “다노모시”는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이 되었다.⁷⁾ 재일한인사회에서 은행이 생기기 전 연고와 자본이 없는 재일한인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없었다. 한인들 사이에서 계(契) 형식의 다노모시를 하며 여성회원들은 상호 목돈을 키울 수 있었으며 이를 관리한 것이 그녀였다. 계원이 34명가량이 되는 다노모시를 3개 운영하였고, 이러한 방식이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연화 할머니가 이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문맹이 많았던 당시 여성들 사이에서 그녀는 문자와 수(數)를 배웠기 때문이며, 그녀에 대한 신용도 다노모시의 장기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 하였다.⁸⁾

연화 할머니의 경우, 여성들은 그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경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정착기반을 형성해온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자본을 가진 여러 개인이 협력하여 큰 자본을 만들고, 이를 회원들이 공평하게 돌아가며 사용하는 원리는 회원 간의 상호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목돈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 이쿠노구에 재일제주인이 밀집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성들의 목돈마련이 가능하였던 주요한 사회적 여건이 되었다고

7) 연화 할머니가 말한 다노모시란 수 명의 회원들이 상호 회비를 모으고 그것을 한명씩 돌아가며 목돈으로 쓸 수 있게 펀드를 모아 목돈으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8) 2006년 8월 11일, 자택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말 할 수 있겠다.

IV. 귀향에 얽힌 사회문화적 지형

도일한 재일한인 이주노동자들 중에 일본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문옥표 1995: 287). 1930년대, 재일제주인의 귀향은 주점으로도 이어짐을 볼 수 있는데, 제주인들의 도일은 일본에 영주(永住)하기보다는 임시적인 왕래의 성격임을 보여주고 있다(마스다 1995 (1937)). 해방 60 여년이 지난 2006년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제주인의 귀향은 어떠한가? 앞의 사례에서 언급한 세 여성들은 남편을 통해 모두 직간접적으로 조총련과 연관이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 후 긴장된 남·북한의 정치 분위기가 이완되고 조선 국적의 재일제주인의 고향 방문 길도 넓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북한)이라는 국적이 고향을 후원하는 일에는 크게 상관이 없으나 고향을 방문하는 데에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었다. 이들의 귀향길은 여전히 '고향방문' 이상의 복잡한 사회문화적 지형 속에 쌓여 있음을 볼 수 있다.

1. 비공식적 증여

제주도민 사회에 대한 재일제주인의 기부는 보편적이며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제주도 1982; 서귀포시 2001). 재일제주인의 고향 제주도에 기증한 공식적 금액은 1960년대 이후 2007년까지 281억 2천 8백 여 만원에 이른다(제주특별자치도 2007).⁹⁾ 이러한 기증은 제주도의 여러

9)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평화협력과에서 발간한 『愛郷의 보람』에서 제주특별자치

마을의 도로와 전기 가설, 학교 설립 및 장학금 후원, 문화 사업 등에 쓰임으로써 제주사회가 발전하는 경제적 토대가 되었다. 공식적 기부와 달리, 고향의 친척과 가족들에게 제사와 별초 명목의 기부금과 방문 시 여러 생활용품의 선물을 나누는 등 비공식적 기부, 증여행위도 보편적이었다. 비공식적 증여는 친척,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기부되었다는 점에서 공식적 기부와 달리 제주도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기부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연화 할머니는 조선 국적을 한국으로 바꾼 후 고향방문을 하며 종친회의 공식행사에 참여하고 또한 성금을 기탁하는 등 고향방문이 활발하였다. 종친회는 남편이 아닌 자신의 성씨인 종친회이며, 이러한 종친회의 행사는 그녀에게 부모의 산소를 돌아보고, 언니와 조카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양씨 할머니는 고향을 떠난 지 53년 만에 3일이라는 짧은 여정으로 고향을 방문 하였다. 2001년 “증명을 내지 못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조총련계라 하여) 15만원 쥐서 증명을 받아” 고향을 갈 수 있었다. 친정 오라버니와 두고 온 딸을 만났고, 부모님 산소를 돌아보고 왔다고 한다. 양씨 할머니의 친정가족으로는 오빠 5명과 언니 2명이 고향에 살고 있다 하였다. 연구자가 처음 양씨 할머니를 만났을 때, 친정 오라버니에게 돈을 부치고 싶다 하였는데, 그것은 자신이 부모 제사와 산소를 돌보지 못한 미안함을 그렇게 대신하고 싶었던 것이다. 또한 외손자가 대학에 입학하므로 딸에게도 돈을 보내고 싶다고 하였다. 낯선 연구자에게 이런 부탁이 오갈 수 있는 것은 연구자가 제주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였겠으나, 편지를 쓸 수 없고, 고향을 갈 수 없는 할머니가 고향

과의 네트워크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편을 통하는 방식은 과거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보편적이었으리라 여겨진다.

2. 무정한 고향

공식적·비공식적인 재일제주인의 고향에 대한 기부현상을 김창민(2003)은 제주도와 재일제주인 사이의 후원자 관계로 설명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기불황과 재일제주인의 고령화는 더 이상 경제적 후원자의 역할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고향방문(귀향)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댁과 친정의 여러 친척들이 제주에 살고 있는 진아 할머니는 한 번도 고향을 올 수 없었다. 진아 할머니는 시댁의 시아주머니에게 집을 마련하여 주었고, 일본에서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의 산소를 고향에 마련했었다. 진아 할머니의 고향에 대한 생각을 다음 두 이야기를 통해 보도록 하겠다.

1) 시댁의 집 이야기¹⁰⁾

(군대 갔다 죽은 줄 알았던 시동생이 살아와서) 너무 반가와서 우리 주인이 한번 (일본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못 간덴 말도 못하고 허니까 야미배(밀항배)타고 와수다. 보니까 너무 반가와가고, 오라서 막 형님네들 야단 이야, '내가 군대 가서 돌아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거냐고 오자마자. '너 곧은 말 모르는 거 아니다'고 '내가 고향에 못가는 걸 다 말해주마'해서 하루는 다 말해줬죠. '내가 안 가려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조선전쟁해가지

10) 2006년 8월 8일, 자택에서 할머니가 부업으로 하는 작은 일("라이쇼쿠")을 하며 오간 대화의 일부분이다.

고 양단 되노니까 우리가 고향 갈 시기가 아니라'고 잘 말해주니까 그때는 '잘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돌아왔으니까 어머니 돌보고 내가 고향은 다 잘 해서 살겠습니다'해서, 마을에 7칸 있는 집이 그 집에 대가 끊겨가지고 팔리게 됐다고, 그 집이 그 때 돈으로 90만원에 내놓게 됐다고 우리 집 팔양 30만원 보태고 60만원을 보태주면 그 살 돈을 해주면 산다고 해서, 우리 주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뻔하다. 우리 동포들한테 빌려가지고 60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집 사서, 형님 덕택으로 집도 사고 이제 걱정 없이 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편지 다 왔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이 삽니다만, 고향에 가자마자 했는데 3년만 있었으면 고향 갔는데 이젠 영 못하고 죽어 붙었주마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걸로 우리를 잘 보는 거라.

이야기에 의하면, 고향의 그 집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라고 해준 집이었다. 그러나 작은 시어주버니가 사망 후 그의 부인은 집을 담보 하여 5남매를 교육시켰으며 지금도 집은 담보된 상태라 하였다. 한편, 진아 할머니의 동생들은 모두 한차례 씩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다.

2) 동생들의 고향방문 이야기¹¹⁾

(남동생의 방문)

셋어명이 나 살아나는 집에 살면서 우리 동생들이 가니까, '나는 제사 열두 번 하고 있다'고, '누구 제삼니까' 허니까, '옛날 조상들 제사 다 하고 있다'고, '너희들 왜 돈 안 보내느냐. '어머니 아버지 산소도 다 내가 돌보고 있다'고. 우리 동생들 돈 아저 댕길 뻔 마을에 다 기부하고 방송 다 만들어주고, 야구하는 사람들 유니폼 해주고 했다고. 이젠 망해부렀다 이거지 동생이! 저번에 갈 때 (재산상속에 대해) 말하니까 형님들이 말 허는 걸 허드래도 갈릴 순 없다고, 남은 거 몇 개는 돈 천오백만원 빚졌으니까, 우리 동생

11) 2006년 8월 8일, 자택, 일을 하며 나는 대화 가운데에서.

이 전에 같이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돌려놓겠다고 했다고, 근데 돈이 없어요. 남에게 모두 뺏겨먹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만나지도 안 한다고 (웃음). 그러니까 나네, 한번은 할아버지 할머니 무덤도 있고 허니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음력 추석 들면 그때 동생들이 가겠다 하면 갈까.....

(여동생의 고향방문)

나 밑에 동생이 있어요. 넷 밑에 일흔 일곱 난 사람이 있어. (고향에) 가고 싶으면 먼저 가라. 이제 가도 별초도 못 허고 이틀 동안 갔다 왔어요. 산소에 절하고, 셋어멍도 찾아봤다고. 오랜만간이 왔는데 막 허고, 내중엔 우리 집에서 자고 밥이나 조금 같이 먹곡행 가래. 말은 안 허고, '돈아정 왔건 놈동 가라!' 어떻게 된 판이야. 돈이나 아정 왔건 놈동 가라. (중략) 아니 처음 보는 사람보고 돈 놈동가래. 아이고 무정헌 사람!

위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보면, 재일제주인들의 고향 후원은 그들이 조상의 산소와 제사, 부모를 모시는 등 가족·친족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의무감에 의한 것이라 고려된다. 그러나 더 이상 경제적 후원자 역할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후원 중단은 고향사람들에게 마치 그러한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치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도덕적 의무가 요구되는 반면 재산 상속에서는 배제되기도 한다.

재일제주인의 고향과 고향사람에 대한 후원 역할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역으로 진아 할머니는 고향에서 온 고종사촌 내외의 오사카 거주를 도와주었음에도 이에 대해 그녀가 받은 보답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향사람들에게는 그 또한 '자연스러운 것'처럼 간주되고 있었다. 재일제주인과 제주인사이의 경제적 후원은 이주함에 따라 고향에서 이행할 수 없었던 친족성원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보상하는 성격이 짙게 배어 있다.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못한, 혹은

고향에 함께 거주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친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가 경제적 후원관계를 낳았고, 이를 다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상속 배제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후원의 방향이 쌍방향이라 아니라 제일제주인에 의한 일방적 후원인 것은 이러한 후원이 '고향에 거주하지 못한 자'가 행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3. 경계를 만든 고향방문

진아 할머니의 남편은 작은아버지의 권유로 오사카 공장에 취업하기 위해 도일한 것이라 하였다. 그녀는 혼인 후 남편과 함께 양복 짓는 일을 함께 하며 살림을 키웠다. 남편은 해방 후 '글자를 아는 사람'이라 귀국하지 못한 한인들에게 식량을 배급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조총련 사업(민족학교 설립)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배급을 하던 기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았다). 진아 할머니는 남편이 "조직"(조총련을 말함)의 일로 언제나 바빴던 것이 불만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자식들과 손녀, 손자들까지 '민족학교'에 입학시켰으며, 큰아들은 민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해방 직후 일본 내에 민족교육 체계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말과 글을 배우고 대다수 동포들이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로써 필요하였던 것이다.¹²⁾ 인터뷰 당시 진아 할머니의 국적은 조선(북한)이었다. 현재 일본과 제주도에 흩어져 사는 시대와 친정의 친척들이 있으나 그녀는 단 한 번도 귀향한 적이 없었다. 다음은 진아 할머니(A)와 연구자(B)의 대화 내용이다.¹³⁾

12) Ryang, Sonia, 1997, *North Koreans in Japan: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 Westview Press(정병호, 2003, p.135, 재인용.).

13) 2006년 8월 8일, 자택에서.

A: 나는 주인네 고향 몰라요 표선이, 우린 구좌면 종달리니까, 여기서 부부간이 되었으니까 시집이 어떤질 잘 모르지 안허여? 시동생도까 이런 사람 있죠, 나보고 오라고 하는데 한번은 갈라 허는데. 우리 시아주방이 우에니까, 고향가도 형제간을 잘 돌보지 안 허고. 그렇게 잘 왔다고 환영 안한다고 우리 시아주방이 갔을 때, 형제간이 잘 왔다고도 안 허고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고향 안 간다. 고향 안가고 여기서 산소 다 사놓고 고향 안 간다'네. 아노 민나(모두) 냉정하다고 그거는 큰아들이니까 큰아들 역할 해야지. 당신들(시아주버니) 사는 것이 그리 넉넉 못 허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아노 형제간도나, 잘 안보는 모양이나.

B: 제주도에는 누가.....?

A: 누이들 서이 이서. 그레도 반갑게 안한다네, 그레 제주 안 간다고.

B: 여기서 잘 못살면 제주도 가도 형제들이 안 반기는 겁니까?

A: 보니까 저기 가서 고향(에 대해) 듣는 얘기에 의하면, 저기 가서 산소를 모셨으면 여기 교포 저기 가서 산소 잘 해주고, 소 하나 사준 사람은 막 환영인거라. 그걸 못하는 사람은 대응 안한다는 거라. 인사도 안 헌다는 거라.

B: (제주에) 가서 산소를 잘 해주고 그런 값으로 돈을 준다거나 해야 합니까?

A: 돌봐주는 사람이어야 허는 거라. 여기 못 사는 사람은 갈 수 없다는 거라.

B: 큰아주버니네는 총련이과?

A: 아니, 저기 어른들은 무조직! 아무것도 이쪽도 저쪽도 안 허는 사람! 그런건 관계어심니다. 형제간은 형제간이니까. 나 그 말을 허는데, 그런 얘가 있어요 아노 박정희 대통령 시기는 뭐 총련계통이라면서 어렵도 없지? 여기서 좀 뭐하면 저기 가서 다 서울 형무소에 가뒀 놓아분 사람도 있고 허기 때문에. 여기서 고향에 그때 데려가는 사람은 총련 사람 모르게 형제간도 모르게, 우리 시아주방도 모르게, 우리로 말하면 형제간이 더 외로워. 살짝 갔다완. 살짝 갔다 와서는 우리보고는

뿔라뿔라 야단이야! 뿔에 야단이나하면 당신네가 조총련 사업하기 때문에 고향에 좋게 취급 안한다고, 거기 친척들 못살게 됐다고 이래요 아이고!

B: 그것 때문에 사이 나빠지진 않아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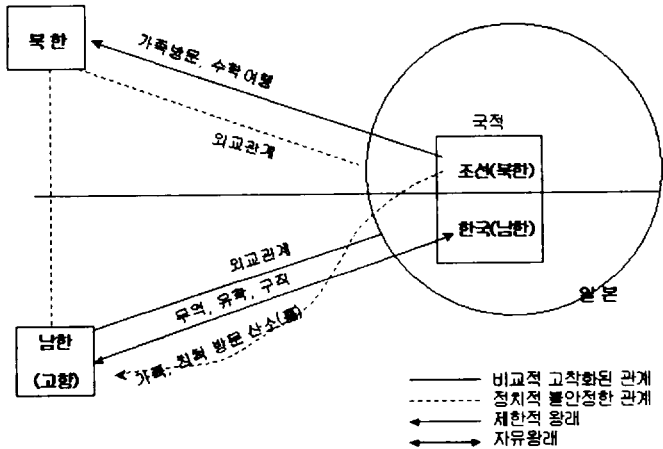
A: 얼마나 저기서 (그랬는지), 우리 시아주방은 (제주도) 갔다 와서 우리 다 불러들여가지고, 아이고 자기들 무슨 조총련을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몰르니깐! 몰르기 때문에, 고향에 가니깐 그 뭐 조총련일 험다해서, 여기 형제간 형제 취급도 안 시켜주고, 막 큰일이야 이제! 나는 예, 우리가 여기서 자기 민족 지키고 찾기 위해서 일하는 게 무슨 그리 나쁘니까? 마, 뿔을 허든 나쁘면 나쁜 사람, 우리가 잘못됐다면 우리가 처벌받지, 당신네는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서(했어).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처벌받아야지, 당신네는 형제간 뿐이지요 같이 우리광 잘못헌거 없지. 그거 (그런) 정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서. 그래 갔다 와서 형제간이 잘못 봤다해서 고향에 안 간다! 그래서 죽어도 안 간다해서 일절 일로 부턴 안갑시다. 참말로 이상허요 그것이나!

위의 내용을 통해, 한국의 연좌제, 그리고 남북한의 정치적 대립양상이 일본에 거주하는 형제 사이에 그대로 투영되어 그들의 관계에도 깊이 개입,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아주버니의 고향방문은 고향의 친척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형제 관계에서도 경계를 만들으로써 진아 할머니에게는 고향의 '이상한 정치'가 이해되지 않는 이질감만 남겨 놓았다. 형제사이에 경계를 만드는 고향의 정치가. 그럼에도 고향방문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고향을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4. 귀향과 귀국 사이

재외동포 가운데 재일한인들은 일시적 고향방문(귀향)에 있어서도 그들의 국적이 영향을 미친다. 남·북한 사이 상호방문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 국적(國籍)의 재일제주인의 귀향도 복잡한 지형 속에 있다. 이를 간략히 다음의 도표로 그려보았다.

〈도표 1〉 조선국적 재일제주인의 귀향



북·일간의 외교관계는 한·일간의 관계와 달리 불안정하다. 남북한의 관계 또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내 조선국적의 한인과 한국 국적의 한인들의 고국방문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조선국적의 재일한인들의 북한방문은 수학여행, 가족 상봉을 위해 방문하는가 하면, 한국국적의 재일한인들은 가족상봉 외에 무역, 유학, 구직 등의 교류가 성립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고향인 재일제주인의 경우 조상묘의 별초는 친족의 주요한 의무로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위 할머니들의 사례에서와 같이, 고향이 한국 제주도인 조선 국적을 가진 할머니들의 고향방문에서 국적은 이들의 귀향을 국적이 다른 이의 '귀국(歸國)'이라는 의미로 전환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단일민족, 고향방문자, 타국적자라는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연화 할머니처럼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거나, 양씨 할머니처럼 “증명”을 받음으로써 고향방문의 장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진아 할머니가 단 한차례 고향방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는 이러한 중첩성이 그녀의 아이덴티티(identity)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6년 8월 15일, 진아 할머니는 남동생의 집에서 할아버지의 제사를 모셨다. 여동생과 남동생, 조카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사가 끝난 후 음식을 먹으며 진아 할머니의 고향방문 이야기가 나왔다. 동생들은 이미 국적을 한국으로 바꾼 상태였으므로 진아 할머니만이 조선 국적이었다. 때문에 그들의 걱정은 출입국시 우리말을 할 수 없는 동생들은 한국인으로 수속을 밟게 되지만, 우리말을 할 수 있는 진아 할머니만이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어 그들 형제자매는 따로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동생들은 진아 할머니의 국적이 바뀌기를 바랐다. 그러나 진아 할머니는 왜 고향 가는데 국적을 바꿔야 하느냐고 역정을 내었다. 국적을 바꾸는 것은 그녀가 해방 전 일본으로 건너와서 살아온 일생의 일부를 바꿔야 하는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고향에서 보냈던 유년시절의 기억과 식민지의 경험, 부모의 산소와 시댁의 집을 마련하여 온 그녀가 고향 가는 길에서 자신을 이국적자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진아 할머니는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이 한민족이라는 이념은 그녀가 고향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에서부터 '이국적자'로 분류함으로써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한 경계를 인식케 하고 있다. 단일민족은 근대국

가의 환상이며, 한 민족이라는 이념의 국가는 상상의 공동체인 것이다 (앤더슨 2002(1991)).

한민족이라고 믿어 온 남북한이 서로 다른 ‘국적’으로 분류되는 그 사이의 괴리는 그녀가 살아온 60여 년만의 귀향을 이국적자의 귀국으로 전환시키고 있음에 반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귀향을 포기하지 않았다. 고향에 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나는 고향에 가면 그걸(시대에 사준 집) 알아보기가 허지만은 우리야 그 집을 사줄 땐 우리가 다시 제주에 와서 살라고 현계 아니라, 그때는 시아주방이 군대 가서 돌아와서 너무 형편이 몰르고 우리도 녀 녀지 안 했주만은 형제간 생각해주고 사 준거니까 당신네들만이라도 그 집을 잘 지켜가지고 아이들하고 살라고, 그런 말이라도 하고 싶어요, 초폐를 알려야지. 고향사람들 모르잖습니까.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략) 우리집안은 부잡니다 이제 생각하면. 소금밭 가지고 있었고, 소도 길러 가지고, 소를 농사짓기 때문에 아무래도 길러야 하지만, 너무나 밭이 많아서 농사가 우리 손으로 다 못하면 남 빌려가면서 하면서,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장남인데 일본에 와부니까 못가서, 우리 두 번째 아버지가 형님 고향에 못 오니까 내가 큰아들 허겠다 해서 그래 팔아 먹었어 몇 개. 그런데 우리 동생들은 여기서 나고 해서 한국 말 잘 못해. 간단헌 인사말은 제주말로 오라수와 가수과 허는 제주말 어머니가 그 말밖에 안 쓰니까, 그말 밖에 못 허주게. 저기 강 한국사람들 하고 죽 허게 말을 못 허잖어. 그런 말을 못합니다, 이 언니가 고향에 살아서 어떻게 헌 걸 몰라. 저기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안 가면은.¹⁴⁾

진아 할머니는 ‘고향사람들에게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말하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큰아들이었던 친정아버지의 재산이 장남인 동생에게 상속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말을 하는 그녀가 대신 알아보아야

14) 2006년 8월 8일, 자택에서.

하는 사정도 있다. 일본의 사정을 '알려야' 하고, 고향의 사정을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다. 곧 그녀의 고향방문은 고향과 일본에 정주하고 있는 친족 간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국적자라는 정체성의 변화를 겪어야 하거나, 혹은 경제적 후원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것은 귀향과 귀국 그 어느 길에서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오사카 이쿠노구(生野區), 재일제주인 밀집 거주 지역에 사는 고향의 재일제주출신 여성들의 생활로부터 초기 이주와 정착, 그리고 다시 귀향에 얽혀 있는 사회문화적 지형을 살펴보았다. 먼저, 오사카의 이쿠노구, 그곳의 조선시장을 한인들이 초기 정착과정에서 상호 거래를 하며 정주기반을 마련하였던 공간으로서 기술(記述)하였다. 조선시장은 제주인들의 남북에 이산가족을 두고 있는 할머니들의 일상적 생활공간이자, 식민지 시대로부터 해방 후 1980년대까지 도일하였던 다양한 이주자들로 구성된 한인사회의 네트워크 공간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오사카 이쿠노구는 재일제주인의 밀집지역이라는 인구의 분포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근현대사, 특히 제주도의 근현대사가 투영된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제주인들의 지역적 밀집 현상에 대하여 연구자는 초기 정착과정으로부터 고찰함으로써 사회적 무자본의 상황에서 상호 집적의 이익을 이루며, 그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의 구실을 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공간이 조선시장이자, 조선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여성들은 채집한 나뭇과 해산물

등을 거래하고, 음식(김치)을 만들며 상품거래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상호 집적의 이익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고향의 소식과 구직 정보가 오갔으며, 새로운 도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시장은 한국(제주)과의 네트워크가 이어짐으로써 국경을 넘은 소통의 공간으로 형성되어 왔다 할 것이다. 초기 정착 자본이 빈약하였던 재일제주인들의 생활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사회적 정착 수단으로서 하나의 자본구실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초기 이주 및 정착에서 여성의 생애는 개인의 삶의 궤적이라는 의미를 넘어 문헌으로 기록되지 않은 초기 이주자들의 생활세계를 담고 있다. 고령의 세 여성을 중심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물질”과 “다노모시”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물질은 열악한 상황에서 생계수단으로서 의미와 현재 재일제주인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잇기도 하고, 여성들의 네트워크 안에서 하나의 자본으로서 기능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여성들 사이의 “다노모시”로 개별적 풍돈을 목돈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자녀의 교육과 결혼 등 생활상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정착 노력이 일본 사회에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고령이 된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고향인 제주도와 네트워크를 가지려고 하며 그것은 일시적 고향방문이나 산소의 마련, 현금 기부와 같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재일제주인들의 비공식적 기부와 후원은 가족, 친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후원은 재일제주인이 고향에 대한 후원이라는 일방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며 친족의 도덕적 의무로서 간주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후원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후원의 단절은 역으로 도덕적 의무의 불이행으로 치환되고 있는 것

은 아닌가 한다. 또한 조선국적의 재일제주인들의 귀향은 이중적 난관에 직면하여 있음을 진아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지적하였다. 그녀의 도일은 식민지 시대에 일어났으며, 재일한인사회의 형성과정과 재일제주인의 고향에 대한 관념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정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재일제주인 2·3세대들은 일본 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한인들로서 이들이 고향과의 네트워크 형성은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리라 본다. 재외동포집단은 남과 북에 속한 “민족집단의 아류”가 아니다. 그리고 “거주국의 여러 지배민족들과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유지하고 재생산해 온 민족경계의 다면성과 민족 정체성의 다중성은 민족=국가의 도식을 넘어선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는 토대”로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정병호 2003: 150). 재일제주인에 대한 관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변화하는 재일제주인사회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 연구는 여성의 일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였으므로 미시적 접근에 의한 거시적 담론의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재일제주인 사회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제주)여성의 생활경험을 다루고, 일상생활, 고향(사람)에 대한 재일제주인의 시각을 드러내고자 하였음에 의의를 둔다. 앞으로 재일제주인 사회 연구가 제주의 지역사회 연구의 한 분야로서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고경일, 「재일동포 고령자의 복지의 현주소」, 『재일제주인의 삶과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주최 학술세미나자료집, pp.121~131, 2005.
- 고광명, 「在日 한국·제주상공인의 실태에 관한 연구」, 『재일제주인의 삶과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주최 학술세미나자료집, pp.135~150, 2005.
- 국립민속박물관, 『일본관서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태웅그래픽, 2002.
- 김봉각, 『현해탄을 넘어서: 재일생활 60년』, 제주문화, 1988.
- 김창민, 「재일교포 사회와 제주 마을간의 관계 변화: 1930-2000」, 『비교문화연구』 제9권 2호, pp.195~221, 2003.
- 김계르만, 『한인이주의 역사』, 박영사, 2005.
- 마스다 이치지(槲田一二), 「제주도의 지리적 연구」, 제주시우당도서관, 1995(1937).
- 문옥표, 「해외이주노동의 실태: 도일 한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사례조사연구」,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24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243~290, 1995.
- 서귀포시, 『西歸浦市誌 上』, 정아기획인쇄사, 2001.
- 신행철, 「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 『濟州島研究』 제14집, pp.53~77, 1997.
- 앤더슨, 베네딕트(Benedict Anderson),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Nationalism*, London: Verso, 1991).
- 양성종, 「日本에서의 濟州島 研究 現況」, 『탐라문화』 제11호, pp.147~167, 1991.
-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 2006.
- 유철인, 「제주 사람들의 생활세계의 일본」, 『한국문화인류학』 제33집 2호, pp.361~378, 2000.
- 윤인진, 「세계 한민족의 이주 및 정착의 역사화 한민족 정체성의 비교연구」, 『재외한인연구』 제12권 1호, pp.5~64, 2002.
- 이문웅, 「재일 제주인의 의례생활과 사회조직」, 『제주도연구』 제4차 전국학술대회발표 자료집, pp.63-69, 1988.

- _____, 「재일제주인 사회의 생활문화에 나타난 적응전략: 광산김씨친족회를 중심으로」, 『재일제주인의 삶과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주최 학술세미나자료집, pp.66~83, 2005.
- 정병호, 『Ⅲ 재일 한인사회』, 『民族과 文化』 제4집, pp.106~144, 1996.
- _____, 「문화적 저항과 교육적 대안: 재일 조선학교의 민족 정체성 재생산」, 『비교문화연구』 제9집 2호, pp.125~155, 2003.
- 제주도, 『濟州道誌 上』, 삼화인쇄주식회사, 1982.
- 제주특별자치도, 『愛鄕의 보람』, 해동인쇄사, 2007.
- 진관훈,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각, 2004.
- _____, 「재일 제주인들의 '고향' 제주에의 기증에 관한 연구」, 『재일제주인의 삶과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주최 학술세미나자료집, pp.151~168, 2005.
- 姜在彦, 「在日朝鮮人の六五年」, 『三千里』 8호(冬), pp.22~45, 1976.
- 高贊侑, 『코리아타운に生きる: 洪呂杓 라이프ヒストリ』, エンタイトル出版, 2007.
- 藤永壯, 高正子, 伊地知紀子, 鄭雅英, 皇甫佳英, 張叶實, 「解放 直後 在日濟州島出身者の生活史調査(1): 梁愛正さんへのインタ ビュー記録」, 『大阪産業大學論集 人文科學編』, 102号, pp.57~74, 2000.
- 枚方市教育委員會, 『在日朝鮮人の歴史』, 株式會社 じんのう, 1991.
- 文道平 編, 『在日朝鮮人の歴史と展望: 近現代の朝鮮と日本の關係史』, 大阪經濟法科大學出版部, 1998.
- 生野區役所, 『生野區50年の歴史と現況』, トリオ印刷, 1997.
- 生野區制50周年記念事業實行委員會, 『生野區50年のあゆみ』, 1993.
- 伊地知紀子, 『生活世界の創造と實踐: 韓國・濟州島の生活誌から』, 御茶の水書房, 2000.
- 耽羅研究會, 『濟州島』 제10호, 新幹社, 2006.
- 原村政樹, 2004, 「海女のりゃんさん」(制作社: 桜映畫社, 90分).

Abstract

Emigration and Homecoming of Jeju Island
Women in Osaka, Japan

An, Mi-jeong*

This paper describes Jeju women's social-cultural feature which is involved in from life and living to early emigration, settlement and homecoming. This is based on the materials by participant observation and life historical approaching from 2006 through 2007. This study inspects concentration of Jeju women that centers on Ikunoku(Osaka) in connection with its regional Chosun market. Chosun market is social networking area which emigrants have its roots by trade and the network provided capital.

As this report puts emphasis on three women's life course, especially their *Muljil*, underwater diving was essential means of living, which connected themselves with social network. In addition, *Kye*, a mutual loan club contributed financial succeed to its members.

The aged women make an effort to be connected with their homeland, Jeju Island, that appeared to be variety of the forms such as temporarily visitation to hometown, making grave for parent and cash contribution. This contribution is regarded as moral obligation of kinship, shows their position of supporters one-sidedly caused by not being in homeland. As a consequence of obligation of financial support

* Special researcher of Tamla Culture Research Institute, Cheju National University

and changing of identity which caused by nationality, their homecoming means much more than home visiting.

This research deals with Jeju women's living experience and express their viewpoint which has excepted from a great discourses. The researcher assert that Jeju islander in Japan is not an attached group to Jeju society but the Korean group interacting with Japanese society. And it indicates the limit of the viewpoint which identifies the nation and the nation state.

Key Words

Jeju islander in Japan, Jeju women, Emigration, Osaka, *Muljil* (plain-Diving), Sponsorship, Homecoming, Nationality

교신 : 안미정 690-0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이도아파트 304동 302호
(E-mail : gasirian@hanmail.net 전화 : 016-652-8563)

최초 투고일 2008. 1. 23

최종 접수일 2008. 2. 4